

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 □

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

“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.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.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.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.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. 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, □□□, □□□,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.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 □ □□ □□.”

□□□□ □□ □□ <□□□□ □□□□>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‘□□□’□ □□□□ □□□. ‘□□ □’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,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,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.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,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.

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□□□ □□□,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,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,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□□. 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.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,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‘□□□□ □□□’ □□□ □□ □□□.



동네방네 아트 워크 - 시가 있는 작은 콘서트

이 콘서트 8월 8일 '시가 있는 작은 콘서트'의 일환으로 열린다. 콘서트 프로그램은 20분 동안 진행되는 시 낭송과 시 쓰기 시간이다. 콘서트 프로그램은 시 낭송과 시 쓰기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. 시 낭송 시간은 시 낭송을 하고 싶은 시인이나 시인이 시 낭송을 하고 싶은 시를 낭송할 수 있는 시간이다. 시 쓰기 시간은 시 낭송을 하고 싶은 시인이나 시인이 시 낭송을 하고 싶은 시를 낭송할 수 있는 시간이다.



동네방네 아지트 - 강화 버드카페

2023년 8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강화도에서 열리는 '강화 버드카페'는
 강화도에서 활동 중인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만든 카페로, 강화도
 의 다양한 새와 생태계를 소개하고, 새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리는
 공간입니다. 카페에는 새의 사진, 새의 소리, 새의 노래 등 다양한 새 관련
 콘텐츠를 제공하고, 새의 생태를 주제로 한 전시도 열 예정입니다. 또한,
 새의 생태를 주제로 한 전시도 열 예정입니다. 또한, 새의 생태를 주제로
 한 전시도 열 예정입니다. 또한, 새의 생태를 주제로 한 전시도 열 예정입니다.
 강화도에서 활동 중인 1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만든 카페로, 강화도
 의 다양한 새와 생태계를 소개하고, 새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알리는
 공간입니다. 카페에는 새의 사진, 새의 소리, 새의 노래 등 다양한 새 관련
 콘텐츠를 제공하고, 새의 생태를 주제로 한 전시도 열 예정입니다. 또한,
 새의 생태를 주제로 한 전시도 열 예정입니다. 또한, 새의 생태를 주제로
 한 전시도 열 예정입니다.



동네방네 아지트 산책단 - 오래된 아지트

9월 8일, 동네방네 아지트 산책단에서는 '오래된 가게'의 정진오 작가를 초청하여 '오래된 가게'와 '짧지만 긴 대화'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. 정진오 작가는 '오래된 가게'를 통해 '오래된 가게'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, '짧지만 긴 대화'를 통해 '오래된 가게'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 정진오 작가는 '오래된 가게'를 통해 '오래된 가게'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, '짧지만 긴 대화'를 통해 '오래된 가게'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

'오래된 가게'는 '오래된 가게'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, '짧지만 긴 대화'는 '오래된 가게'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 정진오 작가는 '오래된 가게'를 통해 '오래된 가게'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, '짧지만 긴 대화'를 통해 '오래된 가게'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 정진오 작가는 '오래된 가게'를 통해 '오래된 가게'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, '짧지만 긴 대화'를 통해 '오래된 가게'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.



동네방네 아지트 - 강화 국자와 주걱

이 공간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읽고 배울 수 있는 장소로, 다양한 분야의 책을 비치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. 또한, 지역 특산물인 강화 국자와 주걱을 소개하는 전시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알리고, 주민들의 자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.

1 / 1000000 3.0 0000 000
 2 / 1000000 3.0 0000 000